



## 경고의 뉴스레터 “나팔”

발행일 : 2016년 7월 발행 (제 75호)

발행 : 경고의나팔 출판

가격 : 프리페이퍼

나팔 HP : <http://www.geocities.co.jp/Technopolis-Mars/5614/>

---

목차:

- ◎권두 메시지 '지식의 열쇠를 꺼내다 예레미야
- ◎간증 '토요일 모임에서 가르쳐 주신 것 (3)' E3
- ◎알림 코너 '신간 서적 소개'

---

### <권두 메시지>

'지식의 열쇠를 꺼내다 예레미야

**누가복음 11:52 ○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은 "지식의 열쇠를 꺼내다"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하고자합니다. 율법의 전문가, 지금 말하면 신학자가 중요한 지식의 열쇠를 꺼내고 있다는 것을 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 <율법 전문가>

위 본문에서 주님은 "가증 한 것이다. 율법의 전문가들"로서 율법의 전문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가 누구인가? 라고 한다면 성경의 율법의 전문가이며, 지금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 인 신학자의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전문가가 주로 더 비난하고있는 것입니다. 이 것은 당연이라고하면 당연합니다. 성경 전문가가 사람의 유익이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되고 있다는 때문입니다.

일반 세계에서 전문가에게로 가서 능력을 향상하고 개선합니다. 예를 들어, 테니스의 서투른 사람이 테니스 전문가에게 가서 연습하면 테니스가 잘되어 시험에서이긴 하기도합니다. 또한

피아노를 연주하지 않는 사람이 피아노 전문가에게 가서 연습하면 예쁜 멜로디에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은 전문가에게로 가면, 기술이 향상되었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 공부에 관해서는 그렇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성경의 전문가인 신학자에게로 갔다 위해 얻어야 지식을 얻지 못하거나 잘못된 지식을 얻는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전문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 듣고 있으면 결과로 진리의 지식에서 벗어나거나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의 전문가 성경 전문가가 재앙이 사람에게서 지식의 열쇠를 持ち去る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이 것입니다. 즉 신학 책은 읽으면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석서도 사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학자의 이야기는 솔직하게 그대로 받아들이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의 이야기와 가르침을 음미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에 들어가거나 지식의 열쇠를 사라져 경우에 따라서는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관해서는 차근차근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의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종교와 성경의 전문가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3:13 ○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신도 들어 가지 않고 들어 가려하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말을 믿고 맹신 해 나가면 천국에 들어가는 커녕 지옥 지옥으로 직행하는 것조차 말해지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3:15 ○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천국에 들어 싶어서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옥으로 직행하는 나쁜 농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께서 친히 알려져있는 것이므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의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시대의 위선의 성경 학자와 종교인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말을 맹신 걸을 때 우리는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커녕 지옥으로 직행 할 가능성이 매우 있는 것입니다.

<지식>

"지식의 열쇠를 꺼내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지식'이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과 같은 그리스가 다음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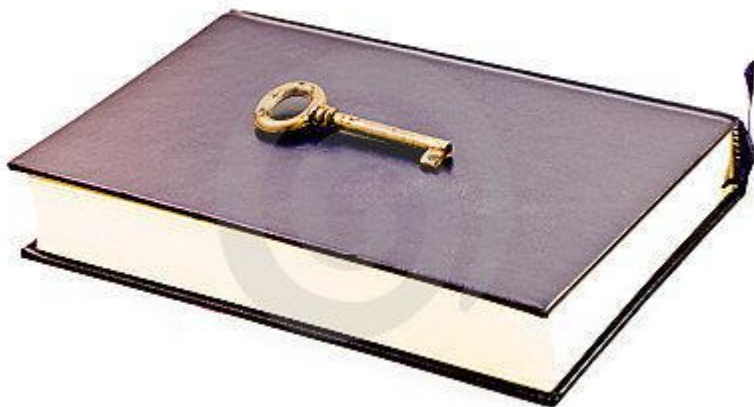
**누가복음 1:17**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 곳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가 영생을 받는데 필요한 지식을 가리키는 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비난하고있는 위선적 인 율법의 전문가들이 지식, 즉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지식의 열쇠를 꺼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 지식에 들어 가려고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지식의 열쇠>

주님은 "지식의 열쇠를 꺼내다"로 지식의 '열쇠'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 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지식의 「열쇠」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키워드 라든지, 키 포인트 라든가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은 열쇠 (key)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중요한 단어 라든지 위한 핵심 말씀에 대해 키워드 라든지, 키 포인트 라든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키워드가 키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위선되는 법 전문가는 그 중요한 키 (열쇠)를 꺼냅니다.



[dreamstime.com](http://dreamstime.com)

### 지식의 열쇠

<천국의 비밀을 이해하는 열쇠 (key)가되는 말씀>

우리가 성경의 숨겨진 진리와 비밀을 이해하는 열쇠 (key)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비유를 이해하는"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마가복음 4:10** ○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열 두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4:11**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4:12**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4:13**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함께 "비록"을 이해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오히려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여 "이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제자에게는 비유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다>

이처럼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비유와 관련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주님 자신의 모든 말씀은 비유가 숨겨져 있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4:33** ○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 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4:34**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여기에서 분명히 "예에 의하지 않고 말한 것은 아니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이 비유 인 것, 그 비유를 이해 할 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는 계획이 있다면 "예"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비록이라고하는 키 (key)를 사용해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 이 키 (key)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궁 붕괴에 관한 비유>

상술 한 바와 같이, 성경은 주님이 비유에 의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주님의 말씀은 표면적 인 의미에 그치지 않고 그이면에 비유의 의미가있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 종말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마태 복음 24 장 종말에 관한 기사에서 '궁 붕괴'에 대해 말했다. 다음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24:1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24:2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여기에서는 돌이 무너져 않고 쌓인 채 남아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성전의 붕괴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2 종류로 성취합니다.

한 번째는 AD70 에 성취합니다. 이때 배교의 유대인의 수도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의해 침략되고 성전은 붕괴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종말의 날에 다시 성취합니다. 그러나 그 때는 말 그대로 궁이 붕괴하는 이라기보다는 비유에서 성취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비유로 성취 그렇게 이해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것입니다.

즉, 원래 예루살렘에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갑에 들어 있지 않은 100 달러 지폐를 훔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처럼 세워져 있지 않은 궁이 붕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예전의 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전이 건립해야 모리아 산에 이슬람의 돔이 위치하고 있으며, 건설 위치도 공간도 전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든지 세우면 좋다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지어야 장소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리아 산이며, 거기 이외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이미 이슬람교도에 의해 점거되고있어 앞으로이 장소가 넓어질 가능성은 전무입니다. 모리아 산상은 이슬람에 있어, 중요한 성지이며, 그들이 여기를 놓지 영원히 있을 수 없습니다.

성전이 재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태가 되었는가? 나는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예루살렘에는 예전의 집 등 존재하지 않는 것을 통해 또 앞으로 다시 성전이 재건 될 가능성 등 전무이며 제로인 것을 통해 우리에게 이 예언 성전의 붕괴의 예언 의 이해에 대해 힌트를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이 예언에 대해 "예"의 이해를 하도록 말씀하고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붕괴에 대해 문자 그대로 해석에 얽매이지 않고, 비유를 이해하자. 성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2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 **2: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대로 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이자 초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 복음 24 장에서 주님께서 성전에 대하여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서 돌이 무너져 않고 쌓인 채 남아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라는 말의 의미 말 그대로 성전의 붕괴를 말했다기보다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 인 교회의 붕괴 배교의 날에 대해 얘기하고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의 말씀과도 부합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 : 3 아무도 어떻게해도 속지 않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먼저 배교가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신해아 주님의 날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데살로니가후서 2:3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 **2:4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여기에는 교회가 종말의 날에 배교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성전의 자리 그리스도가 앉아야 자리에 불법의 사람 곧 적 그리스도가 앉아 그려져 있습니다. 교회가 배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리에서 쫓아 내고 대신 적 그리스도를 교회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일에 관해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궁으로 교회가 신앙 적으로도 교리 적으로도 붕괴하는 날에 대해 작성된 것입니다. 그날에는 성전 인 교회의 신앙 적 토대이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도 교회에서 배제되어 한층 더 초석이다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도 부정되고 그리스도 깨서 성전에서 배제되어 가므 소. 그리고 이것은 바로 주님의 예언 한 마태 24 장 성전의 붕괴 날의 성취입니다.

## **<지식의 열쇠를 빼앗는 성경 학자>**

그런데, 이와 같이 종말의 예언은 비유를 이해하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의 서기관 인 성경 학자 및 신학자는 이렇게 중요한 열쇠 인 비유를 배제하고 부정 쫓아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 해석은 필요 없다"등 비난하더라도 이해에 반대하고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성경은 문자 적으로 번역하는 것이다"등으로 비유에 대해 말했다 그리스도와 정반대를 장려하고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신학교에서도 주석서에서도 비록 추방되어 있으며, 모두 비유를 이해하려고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아무도 그도 눈 멀게 종말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게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 하셨다. "지식의 열쇠를 持ち去る"은 현재의 성경 학자 하나님과 학자 사이에서 성취되고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그들에 의해 방해되는 것입니다.

### <지식의 열쇠가 제거 된 시대>

지금의 시대를 어떻게 이해해야하는 것일까 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의 시대야말로 지식의 열쇠가 제거 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종말의 예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열쇠가 아무도 이것도 위선 성경 학자, 신학자에 의해 제거되거나 것입니다. 결과 아무도 올바른 지식,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없습니다.

짐승의 나라는 미국이다, 종말의 날은 초막절이 중요하다 등의 소중한 지식을 아무도 몰라요.

종말 중요한 종말의 날을 깨닫게 때문에 하나님이 가진 중요한 책인데 이 책을 깨닫는 열쇠가 사라져 있습니다. 결과 아무도 종말의 시대를 깨닫게하고, 준비도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빼앗긴 열쇠를 탈환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합시다.

- 이상 -



## 하나님 나라의 비밀

'토요일 모임에서 가르쳐 주신 것 (3)' E3

---

이번에는 2016 년 5 월 14 일 토요일 제자의 행보 집회에서 "안식일에 일을하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예레미야 목사가 추천되어 있던 것을 소개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예레미야 목사가 메시지입니다.

**출애굽서 35:1**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시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35:2** 옛새 동안은 일하고 제 칠 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35:3**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안식일"은 7 일째로, "7 번째 밀레니엄"로 통합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고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은 무엇을 말하고있는 것일까 요? 동일한 원어를 살펴 보자. 덧붙여서, 구약은 보통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만, 그러나 70 인역에서는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다고합니다. 그리고 "일"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엘곤"라는 뜻입니다.

### **빌립보서 1:22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여기에 쓰여져있는 '일'이라는 말이 앞서의 "일"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봉사의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에 돌아가지만...에서 봉사를 하고는 안되는 것일까 요? 2 절에서 7 번째 밀레니엄은 봉사를해서는 없어요~라는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 적혀 있듯이, 앞으로 교회가 배도가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II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2 장 3 절) 그렇게되면 봉사자들은 적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것 일꾼도 그렇게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살해 버립니다. 그런 것을 위 절에서 말하고있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봉사가 원수가되는 날이 올 것임을 말씀은 이야기입니다. 그 때 봉사를하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만다.

그리고 7 번째 밀레니엄 비정상적인 때입니다. 따라서 봉사에 서지 않는 것이 가장하다는 것을 말씀 말했다 것입니다. 덧붙여서, 7 번째 밀레니엄은 모든 것이 역전하는 날입니다. "악"을 "선"이라고 '선'이 '악'이라고 불행히도 교회에서 '악'이 장려되거나 영합되기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갑니다.

2 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6 일 동안 봉사를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7 일째는 NG! 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3 절에 있습니다 있도록 "불"을 피워온 안한다는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영적 불을 내리고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교회도 7 일째는 봉사자들이 모두 "귀신 불"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있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계시록에도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에 대해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 13 장 13 절) 7 일째는 공공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있는 사람이 적 그리스도의 영을 내릴 봉사자된다는 것입니다. 공공의 교회가 다 배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날은 봉사에 서서 적 그리스도적인 일에 참여는 안 되요 ~라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살펴 보자.

### **출애굽기 16:25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 **16:26 육 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 칠 일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기에 일째와 일째의 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려합니다. 하지만 6 일까지라는

것을 위의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6 일까지 교회에서 마나가 내려 질 것을 기대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7 일째에는 그것이없는 것입니다. 교회 마나는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생명의 빵이 내리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가서도 기대할 수 없다. 그것은 적 그리스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성경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도 놀라지 안 되 겠어요. 그리고이 장 20 절에 있습니다처럼 ... 마나 벌레가 솟아 버리는 것이 중 실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는 7 일째는 어떻게하면 좋은 것일까 요? 그것은 6 일까지 메시지를 먹으면 좋습니다. 다음의 말씀이 그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6:29** 불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 제 육 일에는 이를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 칠 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여섯째 날에는 이를 주의 빵을 너희에게 주고있다."고합니다 같이 6 일째에 모든 좋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6 일째까지의 일꾼 책이나 메시지에 눈을 고정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각자 자기 위치에 체재 그 곳에서 아무도 나와는 안된다."고 적혀 있듯이, 6 일째 위치에서 나와서는 안됩니다. 여기에 머 무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빵을 요구하는 것의 뜻은 없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6 일"과 "7 일"의 구분에 관해서 적혀있는 부분이 있으니 살펴보세요.

**출애굽기 20:11** 이는 옛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 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옛새 동안 만든'라는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록입니다. "하늘과 땅"는 "교회"의 비유에서 "바다"는 "성령"의 비유입니다. 이 것은... 하나님께서 일 동안 이를 건설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조 것과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7 일째는 사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안한다는 것입니다.

즉 일곱째 날에, 지금까지의 교회의 상식을 뒤집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요점은 ... 앞으로 봉사자들이 재앙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 말했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가 봉사자에 내리는 순간이고, 일, 즉 봉사를 할 원수가 영원한 생명을 잃고 시대에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